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1.04.04 (통권342호)



## 경제이슈

3월 美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하락

3월 소비자물가 29개월만에 최고치

## 경영노트

아웃소싱의 균형을 잡아라

## 사회 트렌드

장수하는 종교인, 단명하는 연예인

골드 키즈

## 저널 브리프

SNS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될 9가지

## 洗心錄

‘TGIF’ 세상, 당신은 루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3월 美 소비자신뢰지수 전월대비 하락

- 미국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의 29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월대비 8.6p 하락
  - 소비자 신뢰지수 : 3월 소비자신뢰지수가 63.4를 기록하여 2월 72.0보다 8.6p 하락하였으며, 소비자기대지수도 2월 97.5에서 3월 81.1로 급락
  - 고용시장 전망 악화 : ‘일자리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은 2월 21.2%에서 3월 19.9%로 감소하였으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대답은 2월 15.0%에서 3월 20.7%로 증가
  - 기업 경기 지수 개선 : 기업 경기 조건이 ‘좋다’는 대답은 2월 12.4%에서 3월 15.1%로 개선되었으며 경기 조건이 ‘나쁘다’는 대답은 2월 39.3%에서 3월 37.0%로 소폭 하락
  
-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하며 미국 소비심리와 고용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

□ 3월 소비자물가 29개월 만에 최고치

-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 4.7% 상승하여 국내 물가안정 목표치(3.0±1.0%)를 3개월 연속 상회
  - 농축수산물 : 9월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채소류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여 전년동월대비 14.9% 상승
  - 공업제품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불안이 물가에 반영되며 전년동월대비 5.9% 상승
  - 서비스 :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로 전세 선호 경향이 강화된 가운데 입주물량 부족,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가격이 3.2% 상승하며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를 주도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4월 이후 농산물의 출하가 본격화되고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억제효과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

□ 아웃소싱의 균형을 잡아라<sup>1)</sup>

- 현대는 사업의 가치사슬을 분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외부업체로 넘기는 비즈니스 분할의 시대지만 아웃소싱이 항상 득이 되는 것은 아님
  -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대다수 대기업들은 유연성 재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조, 설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상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간의 연결성이나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음
- 성공적인 아웃소싱을 위해서는 단순히 구성 요소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 시스템의 성능을 최종 상품 성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제품 설계의 너무 많은 부분을 외부 업체에 넘긴다면 설계의 결정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 또한 지나친 아웃소싱으로 내부 기술자들의 역량이 감소할 경우 제품의 개발, 개선 등 성능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내리는 것이 어려워짐
- 성능 통합에 대한 내부 역량을 유지하며 아웃소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소싱과 아웃소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함

< 인소싱과 아웃소싱의 균형 >

내 용	
각 요소에 대한 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수집, 기술 동향 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상품의 성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축적할 수 없음</li> <li>•따라서 내부 직원들도 각 아웃소싱 요소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li> </ul>
학습이 가능한 업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한 내부 직원의 아웃소싱 업체 파견 근무는 파견자가 하청업체에 대한 감독의 역할에 그치게 되어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li> <li>•이에 아웃소싱 파견 근무 시에는 실제 정보 습득과 성능 통합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야 함</li> </ul>
아웃소싱의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직적 연결성: 아웃소싱은 상품의 각 구성 요소 가운데 상품의 주요 성능과 관련성이 낮은 순으로 이루어져야 함</li> <li>•수평적 연결성: 다른 많은 요소들과 연결이 많고 요소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부분일수록 인소싱으로 남겨두어야 함</li> </ul>

1) 본 자료는 ‘What Happens When You Outsource Too Much(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11. 겨울호)’를 요약 정리함

□ 장수하는 종교인, 단명하는 연예인<sup>2)</sup>

-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 정치인, 교수 등이 장수하고 언론인, 체육인, 연예인 등은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1위 종교인과 꼴찌 연예인간 수명 차이가 17년에 달함
  - 김종인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팀 연구에 의하면, 직업별 평균 수명은 종교인(82세), 교수(79), 정치인(79), 법조인(78), 기업인(77), 고위공직자(74), 작가(74), 예술인(74), 언론인(72), 체육인(69), 연예인(65)의 순으로 나타남
  
- 연예인의 경우, 자살은 통계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세에 대한 스트레스 증가, 조기 출세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 및 자기 절제 유지의 어려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로는 ▲신체적으로 규칙적○니 활동과 정신수양 ▲정신적으로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고 과욕이 없음 ▲사회적으로 절식, 금연, 금주의 실천 등을 꾀할 수 있음

□ 골드 키즈<sup>3)</sup>

- 골드맘은 20~30대 고학력에 경제력까지 갖춘 젊은 엄마를 지칭하는데, 골드맘들은 아이를 위해선 서슴없이 지갑을 열어, 최근 물가 폭등의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를 겨냥한 키즈 시장의 소비 열풍을 줄지 않고 있음
  - 특히 구제역, 황사 등으로 국내 나들이 여행이 위축되고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안심리가 생긴 상황에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특급 호텔의 ‘골드 키즈’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
  - 현재 호텔업계를 중심으로 골드 키즈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타 업종에도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2) “장수하는 종교인, 단명하는 연예인”(문화일보 2011.4.4) 참조

3) “호텔업계 골드키즈 잡아라”(문화일보 2011.4.4) 참조

□ SNS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될 9가지<sup>4)</sup>

■ 최근 포브스(Forbes)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올려서는 안 되는 9가지를 제시하였음

- ① 직장 뒷담화 : 무심코 올린 직장 뒷담화 때문에 인사조치나 심한 경우 해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② 집주소와 전화번호 :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무차별한 마케팅 공격이나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③ 휴가기간이나 외출계획 : 휴가기간을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도둑에게 당신의 집이 그 기간 동안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임
- ④ 개인정보 및 일상생활 : 생일, 출생지와 같이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피싱 사기를 불러올 수 있음
- ⑤ 자녀의 개인정보 및 일상생활 : 자녀의 이름과 일상생활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자녀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⑥ 위험한 활동 : 암벽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같은 위험한 활동을 한 후 SNS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은 경우 개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보험금을 인상할 수 있음
- ⑦ 비밀스러운 고백과 부적절한 사진 : 비밀스러운 고백이나 부적절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대중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⑧ 위치정보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글 : 특히 트위터 등은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 본의 아니게 당신의 위치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음
- ⑨ 타인에 대한 공격 : 온라인에서의 타인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지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4) “Think before you use Twitter and Facebook”(The Korea Herald, 2011.3.10)

□ ‘TGIF’ 세상, 당신은 루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요즈음 우리는 ‘나비 효과’를 자주 본다.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는 세상을 바꿔버릴 정도로 상상치 못할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세상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채스민 혁명’은 튀니지의 과일 노점상이 자살하면서 비롯되었다. 사회 불안을 야기했던 ‘잘못 맞으면 죽는다’고 알려진 신종플루 괴담(2009년 10월)이나 ‘남한의 북한 선제 공격’(2010년 5월), ‘일본 방사능 한국 상륙’(2011년 3월)은 휴대폰문자메시지에서 출발했다.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의 첫글자)로 대변되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루머는 이제 언제 어디로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루머는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정책을 망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에 빠뜨린다. 주장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신뢰를 얻는데,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루머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믿음에 부합되고,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만들어지고, 또한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과거처럼 몇몇의 거대한 트렌드나 주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현실 인식을 결정짓는 세상은 사라졌다. 더욱이 사실을 규명한 결과물, 균형 잡힌 정보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루머꾼들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루머를 받아들이는 데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거짓 루머가 개인의 삶이나 크고 작은 조직에 상처를 입히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증상, 모략만큼 빠른 것이 없고, 쉽게 발설되는 것도 없고,  
빨리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고, 널리 퍼지는 것도 없다.”

- 키케로(BC 106~BC 43.12.7): 고대 로마의 문인, 정치가,